

「소쇄원 48영」과 「소쇄원도」에 나타난 식물의 의미와 위치

The Meaning and Location of the Plants in *48 Yeong* and *Soswaewondo*

이 은 정

Lee, Eun-Jung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천 득 염*

Cheon, Deuk-Youm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Soswaewon as a typical villa garden of Korea is a symbolic garden that its diverse compositions imply a specific meaning.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 of introduction, meaning, and location of the landscape plants as one of the compositions and covering quite a large part of Soswaewon through *48 Yeong* (meaning 48 poems of Soswaewon) and *Soswaewondo* (meaning Map of Soswaewon).

In *48 Yeong*, 27 verses describe landscape plants as their key poetic matter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top 3 plants are bamboos, pine trees, and Japanese apricots. The three plants are called *Sehansamwoo*(歲寒三友) showing constant fidelity and loyalty in any changing situations, which was regarded to represent the nature of scholars.

And also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and planting location of the plants in Soswaewon by comparing *48 Yeong* and *Soswaewondo*, and the result showed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That seems to be caused by the limitations in the comparison, because in case of *48 Yeong*, the location and frequency of landscape plants can be examined only through the context of the verses, and *Soswaewondo* showed different production time from *48 Yeong* and expressed them only in a form of drawing.

The plants have symbolic meanings multi-layered and ambiguous. With their symbolic meanings, the landscape plants reviewed through *48 Yeong* consistently represent fidelity and loyalty, man of virtue, and hermit. That is, Soswaewon is the garden granting some significance to its compositions by interacting with the things.

주제어 : 소쇄원, 별서, 48영, 소쇄원도, 조경식물

Keywords : Soswaewon, Villa, 48 Young (48 Poems of Soswaewon), Soswaewondo, Landscape plant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비 문화에 있어 정원은 조영자의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투영된 문화 복합체로, 별서는 선비들의 이상 세계를 표현한 것이었다. 소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별서로서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허투루 놓인 게 없다. 소쇄원의 구성물들은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서 있는 상징적인 정원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쇄원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식물에 대한 고찰로서 소쇄원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소쇄원 48영」(이하 「48영」)과 「소쇄원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식물의 의미와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영자의 의도를 해석하여 소쇄원의 본질적인 의미 탐구와 아울러 향후 조경식물 복원을 위한 지표를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고찰

소쇄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별서로, 그 상징성과 가치 때문에 소쇄원에 관한 연구는 건축, 조경, 국한문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 Corresponding Author : dycheon@hanmail.net

소쇄원의 조경식물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는데, 소쇄원의 공간 구성 요소로서 연구되거나 소쇄원의 의미와 상징성을 연구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48영」과 「소쇄원도」를 중심으로 소쇄원에 도입된 식물을 분석하고 현황과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동오(1973), 천득염·한승훈(1994)은 「소쇄원도」와 「48영」을 통하여 소쇄원의 공간을 나누고 각 공간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면서 조경식물을 다루었다. 심우경(2003), 김영모(2003), 김현미(2011), 위점침·김재식·김정문(2017)은 소쇄원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면서 조경식물의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동오(1977), 유재은(1999), 김준연(2012), 국립문화재연구소(2015), 김진성(2016)은 소쇄원의 수목을 대상으로 「48영」과 「소쇄원도」, 현존 식생을 비교하여 시대별·공간별 수종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렇듯 소쇄원의 조경식물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소쇄원 분석의 1차 자료인 「48영」의 시문 분석을 통한 조경식물의 의미 고찰과 위치 추정은 소쇄원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8영」의 시문 분석을 통해 소쇄원 조경식물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1. 소쇄원 조경식물에 관한 선행 연구

분 야	연 구 자	논 문
소쇄원 공간 구성 요소	정동오(1973)	양산보의 소쇄원에 대하여
	천득염·한승훈(1994)	소쇄원도와 (소쇄원)사십팔영을 통하여 본 소쇄원의 구성요소
소쇄원의 의미	심우경(2003)	소쇄원에 내재된 상징성
	김영모(2003)	시짓기와 원림 조영방법에 관한 연구: 소쇄원사십팔영을 통해본 소쇄원의 조영방법을 중심으로
	김현미(2011)	조선시대 별서정원 소쇄원의 의경 양상 분석
	위점침·김재식·김정문(2017)	담양소쇄원과 소주창랑정의 조영사상과 경관구성요소에 관한 의미 비교연구
소쇄원의 조경식물	정동오(1977)	소쇄원의 조경식물
	유재은(1999)	소쇄원의 조경식물에 대한 고찰
	김준연(2012)	시대에 따른 소쇄원 수목의 변화에 대한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2015)	원림 복원을 위한 전통공간 조성기법 연구: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김진성(2016.12)	소쇄원의 식물 1. 소쇄원48영의 조경 식물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48영」과 「소쇄원도」를 통해 소쇄원 조경식물의 의미와 위치를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서 김인후(1510~1560)가 소쇄옹 양산보(1503~1557)와 교류하면서 지은 시 「48영」(1548)과 소쇄원 중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린 「소쇄원도」(1755)를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48영」은 소쇄원의 모습과 자연관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영(詠)에서 식물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어 조경식물의 의미와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소쇄원도」는 소쇄원의 모습을 가장 정교하게 표현한 유일한 도상 자료라는 점에서 소쇄원에 도입된 조경식물의 종류와 식재 수량, 위치를 고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조경식물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48영」의 시어 중에서 조경식물과 관련된 금언이나 명구를 조사하고 이들의 의미를 통해 조경식물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조경식물의 상징적 의미와 비교를 통해 소쇄원 조경식물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경식물의 위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48영」에서 위치 관련 시어를 추출하였고, 그 위치를 「소쇄원도」에 표시함으로써 「48영」과 「소쇄원도」상의 조경식물의 위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 「48영」과 「소쇄원도」에 나타나는 식물의 의미와 위치

2-1. 대(竹, *Phyllostachys spp.*)

대는 벼목 화본과(Poac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남과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는 그 쓰임이 용이하고 형태적 특징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전통 공간에 많이 심었다. 사군자의 하나로 길고 곧게 자라며,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 절개와 지조의 상징이었다. 또한, 신성한 식물로 신을 부르는 신대(神-)로 사용되기도 했다. 죽림칠현(竹林七賢) 고사에서 죽림은 속세를 등진 성인의 은거지였다. 뿌리의 단단한 결속은 단결심을 상징하기도 했다.

「48영」에서 대는 가장 자주 언급되며 죽(竹), 간(簡), 황(篋), 균(筠)으로 표기된다. 「48영」 중 9개의 영에 출현하나, 주요 시제로 사용된 영은 5개(9영, 10영, 29영, 30영, 32영)이고 3개(7영, 11영, 22영)는 배경림으로 쓰였으며, 1개(35영)는 사계화의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9영과 29영은 진입부에 위치한 죽림을 노래한다. 9영 투죽위교(透竹危橋: 대숲 사이로 위태로이 걸친 다리)에서

표 2. 「48명」에서 조경식물의 의미

식물명	출현빈도	48명 시제명	고전 및 고사	시어	의미
대(竹)	5(4)	9영 투죽위교(透竹危橋)	-	청유(淸幽)	은일
		10영 천간풍향(千竿風響)	두보의 시 「옥화궁」	생우(笙竽)	은일
		29영 협로수황(夾路脩篁)	-	-	-
		30영 병석죽근(迸石竹根)	-	정심(貞心)	절개·지조
		32영 총균모조(叢筠暮鳥)	소상반죽 고사·「귀거래사」	상비(湘妃), 지환(知還)	절개·은일
		7영 고목통류(剝木通流)	-	-	-
		11영 지대납량(池臺納涼)	『서경』	풍동(風動)	은일·태평성대
		22영 상암대기(床巖對藜)	-	-	-
		35영 사침사계(斜簷四季)	-	-	-
소나무(松)	3	17영 송석천성(松石天成)	-	참천벽(參天碧)	-
		26영 단교쌍송(斷橋雙松)	「남전현승청벽기」	남전(藍田)	은일
		27영 산애송국(散崖松菊)	「귀거래사」	송국(松菊)	은일·절개
매화(梅)	2(1)	12영 매대요월(梅臺邀月)	방자옥절 사자성어	빙자(氷姿)	청초한 선비
		28영 석부고매(石趺孤梅)	-	기절(奇節)	절개
		35영 사침사계(斜簷四季)	-	-	-
벽오동(梧·桐)	2	37영 동태하음(桐臺夏陰)	『예기(악기편)』	순일(舜日)·남풍(南風)	태평성대
		38영 오음사폭(梧陰瀉瀑)	「(모시)정전」	오(梧)·봉(鳳)	태평성대
이끼(蘚·苔)	2	18영 편석창선(遍石蒼蘚)	『맹자』	구학(丘壑)	은일
		5영 석경반위(石逕攀危)	-	진사(塵蹤)	은일
살구/은행(杏)	1	15영 행음곡류(杏陰曲流)	『장자(잡편)』	행변구(杏邊求)	도학의 장소
회화/느티(槐)	1	24영 의수괴석(倚睡槐石)	남가일몽 고사	괴석(槐石)·의왕(蟻王)	은일
복숭아(桃)	1	36영 도오춘효(桃塢春曉)	「도화원기」	무릉계(武陵溪)	무릉도원
배롱(紫薇)	1	42영 진간자미(漣澗紫薇)	화무십일홍 고사	십일향(十日香)·백석(百夕)	절개
버드(柳)	1	39영 유정유객(柳汀迎客)	「오류선생전」·육구몽의 시 「동류」	유정(柳汀)	은일
단풍(楓)	1	44영 영학단풍(映壑丹楓)	「옹호산사」	적력(寂歷)·암학(巖壑)	가을 정취, 은일
치자(梔子)	1	46영 대설홍치(帶雪紅梔)	『양화소록』	육출(六出)	절개
사계화(四季)	1	35영 사침사계(斜簷四季)	『양화소록』·『맹자(만장편)』	청화비사시(淸和備四時)	꽃 중에 성인, 절개·지조
파초(芭蕉)	1	43영 적우파초(滴雨芭蕉)	「은일전문」	적요(寂寥)	선비의 거처
국화(菊)	1	27영 산애송국(散崖松菊)	「귀거래사」·「음주」	송국(松菊), 동리점점황(東籬點點黃)	은일·절개
창포(菖蒲)	1	34영 격단창포(激澗菖蒲)	『신선전』	구절향(九節香)	은일
연꽃(蓮)	1	40영 격간부거(隔澗芙蓉)	「애련설」	정식(淨植)·원관(遠觀)	군자
순채(蓴)	1	41영 산지순아(散池蓴芽)	순쟁노회 고사	옥회(玉膾)·빙사(氷絲)	풍류
난(蘭)	(1)	40영 격간부거(隔澗芙蓉)	-	-	군자

※ 회색 음영: 식물이 부소제 또는 다른 식물의 비교 대상으로 사용된 경우

는 죽림을 뚫고 흐르는 계류가에 위태로운 다리가 놓여 있어 다리를 건너 임당(林塘)에 다다르는 과정으로, 소쇄원의 진입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새로 난 넓은 길로 온 것이 아니라 계곡의 진행 방향 좌측으로 올라가 투죽위교를 건너는 것으로 보인다. 29영 협로수황(夾路脩篁: 오솔길의 좁은 대숲)은 벗의 왕래를 위해서 오솔길의 대숲을 정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30영 병석

죽근(迸石竹根: 돌 위에 서러 뻗은 대 뿌리)은 먼지 묻음을 부끄러워하는 강직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32영 총균모조(叢筠暮鳥: 해 저문 대밭에 날아든 새)에서는 소상반죽(瀟湘斑竹)의 고사를 인용해 절조를 노래하며 속세를 떠나 소쇄원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래한다. 10영 천간풍향(千竿風響: 대숲에 부는 바람 소리)은 두보의 「옥화궁(玉華宮)」을 바탕으로 한 시로, 대숲이 흔들리

표 3. 「48영」과 「소쇄원도」에서의 조경식물 위치 비교

기 호	식 물 명	48영 시제명	48영 위치	소쇄원도	일치 여부
I	대(竹)	9영 투죽위교(透竹危橋)	진입부(透竹危橋)	진입부(透竹危橋)	◎
		10영 천간풍향(千竿風響)	-	제월당 후면(千竿)	△
		29영 험로수황(來路脩篁)	진입부(夾路)	진입부(來路脩篁)	◎
		30영 병석죽근(迸石竹根)	돌 위(迸石)	-	▲
		32영 총균모조(叢筠暮鳥)	돌 위(石上)	대봉대 옆(叢筠)	◎
		7영 고목통류(剝木通流)	연못 부근(竹下池)	대봉대 옆(叢筠)	◎
		11영 지대납량(池臺納涼)	연못 부근(池臺, 臺邊竹)	-	▲
		22영 상암대기(床巖對碁)	돌기슭(石岸)	-	▲
		35영 사침사계(斜簷四季)	-	-	×
II	소나무(松)	17영 송석천성(松石天成)	돌 위(片石)	계류가	◎
		26영 단교쌍송(斷橋雙松)	다리가(斷橋)	와송(臥松)과 맞은편	◎
		27영 산애송국(散崖松菊)	북녘고개(北嶺, 기슭(崖))	-	▲
III	매화(梅)	12영 매대요월(梅臺邀月)	매대(梅臺)	매대(梅臺)	◎
		28영 석부고매(石趺孤梅)	돌받침(石趺)	-	▲
		35영 사침사계(斜簷四季)	-	-	×
IV	벽오동(梧·桐)	37영 동대하음(桐臺夏陰)	동대(桐臺), 바위 비탈(巖崖)	대봉대 위, 동(桐)	◎
		38영 오음사폭(梧陰瀉瀑)	폭포 주변(瀉瀑)	대봉대 위, 동(桐)	◎
V	이끼(藓·苔)	18영 편석창선(遍石蒼藓)	돌 위(石逕)	-	▲
		5영 석경반위(石逕攀危)	돌 위(逕石)	-	▲
VI	살구/은행(杏)	15영 행음곡류(杏陰曲流)	굽이치는 물가(曲流)	행음(杏陰)	◎
VII	회화/느티(槐)	24영 의수괴석(倚睡槐石)	돌 옆(槐邊石)	괴석(槐石)	◎
VIII	복숭아(桃)	36영 도오춘효(桃塢春曉)	도오(桃塢)	도오(桃塢)	◎
IX	배롱(紫薇)	42영 친간자미(襯澗紫薇)	개울가(襯澗)	수대와 연못 사이	◎
X	버드(柳)	39영 유정유객(柳汀迎客)	개울가(柳汀)	개울가(柳汀)	◎
XI	단풍(楓)	44영 영학단풍(映壑丹楓)	골짜기(映壑), 바위와 골짜기(巖壑)	도오 가장자리	◎
XII	치자(梔子)	46영 대설홍치(帶雪紅梔)	-	-	×
XIII	사계화(四季)	35영 사침사계(斜簷四季)	초가지붕 아래(茅簷)	-	▲
XIV	파초(芭蕉)	43영 적우파초(滴雨芭蕉)	-	제월당 전면(芭蕉), 진입부	△
XV	국화(菊)	27영 산애송국(散崖松菊)	동쪽 울타리(東籬, 기슭(崖))	-	▲
XVI	창포(菖蒲)	34영 격단창포(激湍菖蒲)	세찬 여울가(激湍)	오곡류 아래	◎
XVII	연꽃(蓮)	40영 격간부거(隔澗芙蓉)	개울 건너(隔澗)	-	▲
XVIII	순채(蓴)	41영 산지순아(散池蓴芽)	연못(散池)	하지(散池蓴芽)	◎
XIX	난(蘭)	40영 격간부거(隔澗芙蓉)	-	매대, 도오, 고암정사의 전정	△
A	측백(側柏)	-	-	매대	△
B	동백(冬栢)	-	-	에양단	△

◎: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17), △: 「소쇄원도」만 나타나는 경우 (5), ▲: 「48영」만 나타나는 경우 (10), ×: 위치 정보가 없는 경우 (3)

는 소리를 피리 소리라 하여 소쇄원이 자연과 조화됨을 노래한다. 대는 군자, 절개와 지조, 신의 강림처, 은일, 단결심 등의 의미가 있으며, 「48영」에서는 군자, 절개와 지조, 은일 등을 상징했다.

「48영」을 통해 식물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1) 진입부 2) 돌 위로 표현된 개울가 3) 연못 부근 4) 위치가 명확하

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소쇄원도」에서는 1) 진입부 2) 대봉대 부근 3) 제월당 후면 4) 고암정사 측면 등에서 보이고 있어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48영」에서는 개울가 주변으로 대가 있는데 「소쇄원도」에는 볼 수 없다. 이는 「소쇄원도」를 제작할 때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쇄원도」에서는 제월당 후면과 고

암정사 측면에 죽림이 보이나, 「48영」에서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48영」에서 세월당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고암정사는 「48영」 이후에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이다.

2-2. 소나무(松, *Pinus densiflora*)

소나무는 잎이 푸르고 뿌리가 곧아 절개와 지조의 상징이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종이다. 소나무는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장수(長壽)를 기원하기도 하고 탈속(脫俗)·은일을 상징하기도 한다. 묘소 주변의 도래술은 벽사(辟邪)와 정화(淨化)의 상징이었다.

「48영」에서는 17영, 26영, 27영 등 3개 영에 등장하며 1) 다리 건너 한 쌍, 2) 돌 위, 기슭 등 개울가에서 보인다. 「소쇄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 다리 건너 한 쌍, 2) 계류가 주변에 심어졌으며 6곳에서 나타난다.

「48영」 중 17영 송석천성(松石天成, 하늘이 만든 소나무와 바윗돌)은 바위에 뿌리를 두고 세월이 꽃을 몸에 가득 피우고 굳은 기세로 높이 솟아 푸른 소나무를 노래했다.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읊은 것이다. 26영 단교쌍송(斷橋雙松: 다리 너머의 두 그루 소나무)에서는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承廳壁記)」를 바탕으로 한 시로 세속의 번잡함을 경계한다. 27영 산애송국(散崖松菊: 절벽에 흐트러진 소나무와 국화)에서 송국(松菊)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유래하였으며, 절구에서 늦겨울 찬서리를 잘도 버틴다고 하여 은일과 절개를 표현했다. 소나무는 민족의 기상, 군자, 지조와 절개, 장수, 탈속, 은일, 벽사와 정화 등을 상징하는데, 「48영」에서는 지조와 절개, 은일을 상징한다.

2-3. 매화(梅, *Prunus mume*)

매화는 중국 원산이나 삼국시대 이전부터 심기 시작해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꽃나무이며, 그 열매는 매실로 과일나무이기도 하다. 굽튼어진 고목에서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회춘(回春)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추위를 이기고 피우는 청초한 꽃과 그윽한 향기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소나무,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라 하여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다.

「48영」에서는 대나무,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3개의 영에서 보이는데, 12영, 28영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35영에서는 대나무와 함께 사계화의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소쇄원도」에서 매화는 8회 등장하여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

12영 매대요월(梅臺邀月: 매대의 달맞이)에서는 매화가 심긴 화계에서 달빛을 감상하는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절구의 빙자(氷姿)는 얼음같이 투명한 모습이란 뜻으로 매화의 깨끗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청초한 선비의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28영 석부고매(石跣孤梅: 돌 받침 위의 고독한 매화)에서는 해 질 녘 매화분(梅花盆)을 감상하는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2구에서 기절(奇節)은 뛰어난 절조를 의미한다. 매화는 회춘, 희망, 지조와 절개 등의 상징이나, 소쇄원에서는 지조와 절개를 가진 선비정신의 표상이었다.

「48영」에서 위치는 1) 매대, 2) 매화분이다. 「소쇄원도」에서 매화는 1) 매대 2) 도오 뒤, 3) 행음 옆, 4) 고암정사 전면 석축 등 「48영」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볼 수 있으나, 매화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쇄원도」에서 행음 옆의 나무는 다른 곳의 매화에 비해 곧은데, 매화와 살구나무가 매우 유사해 구분하기 어렵고 공자의 강학처라는 장소 특성상 살구나무일 가능성도 있다.

2-4. (벽)오동나무[(碧)梧桐,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 벽오동: *Firmiana simplex*]

오동은 잎이 넓은 나무로 가볍고 빨리 자라며, 그 재질이 가구재나 약기로 사용하기 적합해서 딸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있다. 벽오동은 커다란 잎이 오동나무와 유사하나, 줄기의 빛깔이 푸르다 하여 벽오동이라고 불린다. 벽오동은 봉황이 깃드는 길상(吉祥)의 나무이다. 봉황은 성군이 출현할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벽오동을 심는 뜻은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이다. 청빈한 선비의 나무로 알려져 서당이나 서재 앞에 종종 심었으며, 신희의 「야언(野言)」에서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곡조를 간직한다’고 하여 변치 않는 절조를 노래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오동나무를 동(桐), 벽오동을 오동(梧桐)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그 구분이 엄밀하지 않다.

「48영」 중 37영에서 동(桐), 38영에서 오(梧)가 연이어 나타나고, 「소쇄원도」에서는 대봉대 상부 소정 옆에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다. 그 위치는 37영에서 동대(桐臺)에 나무줄기가 바위 비탈[巖崖]에 드리우며, 38영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폭포수[瀉瀑]가 쏟아진다고 하여 대봉대의 오동나무가 개울가에 드리워진 것으로 보인다.

「48영」에서 37영 동대하음(桐臺夏陰: 오동나무 언덕의 여름 그늘)에서는 『예기(禮器)』 「악기편(樂記篇)」의 시구를 차용해 목은 오동 줄기로 맑게 그늘지고 순임금의 은혜로 길이길이 밝혀져서 온화한 남풍 지금까지 불어준다고 노래한다. 38영 오음사폭(梧陰夏瀑: 오동나무 그늘 아래 쏟아지는 폭포)에서는 오동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

을 봉황새의 춤으로 비유하여 소쇄원에 봉황이 출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37명과 38명 모두 푸른 나무 그늘이 드리워 소쇄원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음을 노래한다.

동(桐)과 오(梧)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48명」에서 동(桐)과 오(梧)를 연이어 노래한 점, 시의 심상(心想)이 같은 점, 위치가 유사한 점, 「소쇄원도」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같은 나무를 노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5. 이끼(藓·苔)

이끼는 육지 생활의 중간 단계인 식물로, 축축한 나무 줄기나 땅 위, 바위 등에서 자란다. 이끼는 정원에 운치를 더하는 식물로 『양화소록』에서는 돌에 이끼를 내는 법을 소개하고 있고,¹⁾ 『색경증집(穡經增集)』에는 종분취경(種盆取景)이라 하여 고목의 운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분토(盆土)에 이끼를 생겨나게 하는 요령이 소개되어 있다.

소쇄원에서 이끼는 자연히 자라난 것이지만, 「48명」에서 5명 석경반위(石逕攀危: 돌길을 위태로이 오르며)에서 이끼는 밟혀도 또다시 푸르름이 더해지고 18명 편석창선(遍石蒼蘚: 돌에 두루 낀 푸른 이끼)에서 계곡의 축축한 돌에 핀 변화하지 않은 푸르고 푸른 이끼꽃, 즉 변화함에 뜻이 없는 은자를 소박한 이끼꽃에 비유하고 있다. 이끼 낀 고즈넉한 소쇄원의 한 풍경을 노래하여 은자의 소박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48명에서는 2개의 영에 걸쳐 나타나며, 「소쇄원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2-6. 행목(杏,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행나무는 일반적으로 살구나무로 해석되며, 행화(杏花)는 살구꽃, 행림(杏林)은 『신선전(神仙傳)』의 동선행림(董仙杏林)에서 유래하여 의사나 병원을 의미한다. 염우(艷友)라 하여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해동가요(海東歌謠)』 화중왕(花中王)에서 행화는 소인(小人)으로 비유되기도 한다.²⁾ 또한, 행단(杏壇)은 공자의 강학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부터 행단의 나무를 은행나무로 보고 현재 공자와 연관된 곳에는 거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다.³⁾

「48명」 중 15명에 행음(杏陰)이 등장한다. 「소쇄원도」

1) 『양화소록』 괴석의 내용에는, 「종화법(種花法)」에 “만약 돌 위에 이끼를 내고자 하면 미나리짱 진흙에 마분(馬糞)을 섞고 돌을 그 속에 넣어 비습한 곳에 두면 오래지 않아 이끼가 생긴다”고 하였다. 강희안, 『양화소록』, 개정판, 이병훈 역, 을유문화사, 서울, 2000, 125쪽

2)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개정판, 넥서스BOOKS, 서울, 2004, 63쪽

3) 이선, 『우리와 함께 살아 온 나무와 꽃: 한국 전통 조경 식재』, 조판, 수류산방.중심, 서울, 2006, 661쪽

에서는 오곡류 옆 행음 외에도 진입부에 행정(杏亭)이라 표시하고 행음과 같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15명 행음곡류(杏陰曲流: 행나무 아래 물은 굽이치고)에서, 행음은 공자의 뜻을 찾는 장소로 주자가 무이정사를 경영하던 오곡류가 굽이치는 곳에 위치하여 도학(道學)의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48명」에서 행나무가 살구인지 은행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소쇄원도」에서 행정과 행음은 형태나 잎의 묘사로 볼 때 은행나무일 가능성이 높다.⁴⁾⁵⁾

2-7. 핵나무(槐,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핵나무는 원래 회화나무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김새가 비슷하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느티나무도 ‘괴(槐)’라고 부르면서 혼용되었다. 핵나무는 수명이 길어 신성한 나무로 여겨져 당산목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중국 주나라 때부터 삼괴구극(三槐九棘)이라 하여 조정(朝廷)에 심어졌다. 회화나무는 나뭇가지의 뺨음이 제멋대로인데, 이를 두고 학자의 기개를 상징한다고 하여 학자수(學者樹)라 부르며, 선비의 과거급제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기념식수로 많이 심었다.⁶⁾ 남가일몽(南柯一夢) 고사는 핵나무 아래 있던 개미 나라 이야기로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한다.

24명 의수괴석(倚睡槐石: 핵나무 옆 바위에 기대어 졸다가)은 남가일몽 고사를 바탕으로 한 시이다. 핵나무는 신목(神木), 입신양명(立身揚名), 학자수(學者樹)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소쇄원에서는 헛된 꿈을 경계하는 상징물로 이용되었다.

「48명」에서는 핵나무의 위치를 괴석(槐石)으로 표현하고 있고, 「소쇄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암(鰲岩)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괴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담장밖 황금정 부근에도 세 그루 더 있다. 그림으로 회화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괴석 자리에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다.

2-8. 복숭아나무(桃, *Prunus persica*)

복숭아나무는 꽃과 열매가 좋아 삼국시대부터 궁궐, 도성 내 많이 식재했다. 살구와 함께 봄을 대표하는 꽃나무로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妖友]를 상징하기도 한다. 복숭

4) 박준규·최한선·박행보(2001), 『시와 그림으로 수놓은 소쇄원 사십팔경』, 초판, 태학사, 서울, 2000, 76쪽

5) 이선, 앞의 책, 2006, 663쪽

6) 박상진, 『궁궐의 우리 나무』, 개정판, 놀와, 서울, 2011, 149쪽

아 열매는 불로불사 하는 신선의 과일이며,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복숭아나무가 백귀를 제압하는 선목(仙木)이라 하였다.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복숭아나무는 무릉도원을 상징한다.

「48영」에서는 36영에서 도오(桃塢)를 노래하며, 「소쇄원도」에서는 도오에 한 그루, 광풍각 측면에 두 그루가 있다. 도오는 복숭아나무가 심어진 화오(花塢)이다. 전통 공간에서 화오는 낮은 석축을 쌓아 화단을 조성한 것을 말한다. 그 위치는 「48영」에서 바윗골 속에 무릉계(武陵溪)를 건너가는 듯이라고 표현하여 「소쇄원도」에서 계류가 석가산 뒤로 조성된 도오의 경관과 일치한다.

36영 도오춘효(桃塢春曉: 복숭아 언덕에 봄철이 찾아오니)는 「도화원기」를 바탕으로 한 시로, 만발한 복숭아꽃이 새벽안개에 드리워 무릉계곡을 건너는 듯하다고 노래한다. 복숭아나무는 요우, 불로장생, 벽사, 무릉도원 등 다양한 의미가 있으나, 소쇄원에서는 무릉도원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수목으로 사용되었다.

2-9. 배롱나무(紫薇, *Lagerstroemia indica*)

배롱나무는 여름 내내 감상할 수 있는 자줏빛 꽃과 매끄러운 수피가 특징적인 나무로, 간지럼을 많이 타는 나무라고 하여 과양수(怕痒樹)라고도 불리며, 나무 백일홍이란 의미로 목백일홍(木百日紅)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소쇄원 인근의 광주천 상류를 배롱나무가 많은 개울이라 하여 자미탄(紫薇灘)이라고 불렸으며, 인근에 면양정, 송강정, 명옥헌,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 독수정 등 호남의 이름난 정자가 모여 있었다.

중국에서는 궁궐과 관청에 많이 심어 당대(唐代)에는 중서성(中書省)을 자미성(紫薇省)이라 하였으며, 당시 시인 백거이는 「직중서성(直中書省)」에서 자신을 자미랑(紫薇郎)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롱나무는 부산 양정동의 배롱나무(천연기념물 제168호)로 배롱나무 중 유일한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정문도 전설⁷⁾의 명당터에 심겨 있는데, 이는 후손의 부귀와 영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신경준은 「순원화훼잡설(淳園花卉雜說)」에서 절도(節道)는 이어져서 끝이 없는 도이며, 자미화가 백 일 이상 꽃을 피우는 것은 절도의 의미를 터득하고 있다고

노래한다.⁸⁾ 또, 배롱나무의 매끈한 수피를 오염하다고 여기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곱과 속이 같은 선비의 모습으로 여기기도 했다. 여름 내내 붉은 꽃을 피우니 일편단심 절개를 굽히지 않는 선비를 상징하기도 했다.

42영 촌간자미(漣澗紫薇: 가까운 계곡에 핀 백일홍)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⁹⁾ 고사를 이용해 지은 시로, 세상에 무성히 자란 꽃이라도 열흘 가는 향기가 없는데, 배롱나무만은 백 일 내내 붉은 꽃을 대하게 한다고 노래한다. 배롱나무는 궁궐의 나무, 부귀와 영화, 절도, 일편단심, 오염 등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소쇄원에서는 일편단심의 절개를 의미한다.

「48영」에서는 개울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소쇄원도」에서는 소당과 수대 사이의 개울가에서 한 그루 보인다.

2-10. 버드나무(柳, *Salix spp.*)

버드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번식이 왕성한 나무로, 전통 공간에서는 버드나무, 왕버들, 능수버들이 많이 이용되나,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버드나무로 총칭했다.¹⁰⁾ 고려 때부터 문전수류(門前垂柳)라 하여 문 앞이나 울타리 주변에 많이 심어졌다. 버드나무는 토속 신앙에서는 악귀를 쫓아내는[辟邪] 식물이었으며, 늘어진 형태의 버드나무 가지는 봄, 여인, 이별 등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현신할 때 쥐고 있던 것으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상징하기도 한다. 유교에서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치를 내는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며, 도연명이 집 주위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¹¹⁾이라 불렀다는 것과 관련해서 은군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48영」에서는 개울가 인근 손님을 맞이하는 곳으로 광풍각 인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쇄원도」에서 위고서쪽의 개울가, 광풍각의 진입부에 한 그루 있어 「48영」과 유사하다. 나무의 모습으로 보아 가지가 늘어지는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인 듯하다.

8) 고연화·김동준·정민 외,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초판, 태학사, 서울, 2013, 123쪽

9) 화무십일홍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남송(南宋)의 시인 양만리(楊萬里)가 ‘꽃은 열흘 붉은 것이 없고, 사람은 백일이 한결 같을 수 없으며, 권세는 십년을 가지 못한다(花無十日紅 人不百日好 勢不十年長)’라고 노래한 것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10) 이선, 앞의 책, 2006, 603쪽

11) 도연명은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에서 집 주위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더니(宅邊有五柳樹) 사람들이 자신을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불렀다고 했다.

7) 정문도는 동래정씨의 2대조이나 시조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바로 그 묘 양옆에 배롱나무가 서 있다. 정문도 전설에 따르면, 처음 묘를 썼을 때 매일 밤 도깨비들이 나타나 파헤쳤다. 숨어서 살펴보았더니 도깨비들이 ‘임금님의 황금 관이나 물을 장소’라고 수군대는 것이었다. 이에 보릿짚으로 관을 둘러 싸 황금 관으로 위장하여 어리숙한 도깨비 눈을 속이고 나서야 겨우 묘를 쓸 수 있었다. 정문도의 묘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당자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고유홍, 『이 땅의 큰 나무』, 초판, 놀와, 서울, 2003, 344~353쪽

39영 유정영객(柳汀迎客: 버드나무 물가에서 손님을 맞다)에서, 유정(柳汀)은 육구몽(陸龜蒙)의 시 「동류(冬柳)」의 시어로 은자(隱者)가 머무는 곳이다. 이는 은일했던 도연명의 삶이며 곧 양산보의 삶이기도 했을 것이다. 버드나무는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소쇄원에서는 도연명과 같은 은일을 의미한다.

2-11. 단풍나무(楓, *Acer platanum Thunb.*)

단풍나무는 단풍을 감상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하여 목재로도 널리 쓰였다.¹²⁾ 가을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나무는 가을의 정취와 풍류의 상징이었다. 중국 한나라 이후로 궁궐에 많이 심어져 궁궐을 풍신(楓宸)이나 풍궐(楓陛)라고도 하였다. 『양화소록』의 「화목구등품(花木九等品)」에서 나름 특색을 취하는 나무로 7등의 품계를 매겼다.

단풍나무는 「48영」 중 44영에서 나타나며, 그 위치는 골짜기[壑, 巖壑]이다. 「소쇄원도」에서는 도오(桃鳴) 위 개울가 인근에서 한 그루 찾을 수 있다.

44영 영학단풍(映壑丹楓: 골짜기에 비치는 단풍)에서 3구 적력(寂歷)은 장열(張說)의 「옹호산사(灑湖山寺)」¹³⁾의 시구이며, 처사가 거처하는 골짜기[巖壑]에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든 가을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2-12. 치자나무(梔子, *Gardenia jasminoides for. grandiflora*)

치자나무는 향기롭고 청초한 꽃과 요긴한 쓰임을 지닌 열매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나무이며 담복(蔞蔔)이라고도 한다.¹⁴⁾ 『양화소록』에서 치자의 꽃, 향기, 잎, 열매의 네 가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말한다. 『산림경제』에서도 ‘화훼 중의 명품’으로 칭송했다. 증단백(曾端伯)은 「화중십우(花中十友)」에서 선우(禪友: 참선하는 벗)라 하였으며, 안평대군은 치자를 두고 10대 명화이훼(名花異卉)로 그 품위를 찬미했다. 치자는 「48영」의 46영에서 나타나지만 치자의 위치를 추정 가능한 시어가 없고 「소쇄원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46영 대설홍치(帶雪紅梔: 눈 위의 붉은 치자나무)는 『양화소록』에서 설명하는 치자의 네 가지 아름다움과 꽃의 형태를 그대로 노래하고 있다. 또한, 절구에서 눈서리에도 맑고 고운 청연한 모습은 높은 절조(節操)의 변치 않는

단심(丹心)을 표현하였다.

2-13. 사계화(四季花, *Rosa chinensis*)

사계화는 장미과의 일종으로, 연중 네 번에 걸쳐 개화하여 사계화라 이르며, 꽃 빛깔이 희고 잎이 둥글고 큰 것은 월계화라 한다. 「화목구등품」에서 3등에 속하며 운우(韻友: 운치 있는 친구)라 한다. 『양화소록』에서는, 사계화가 운치와 품격이 있는 명품으로 사시(四時)를 두고 홀로 피니 지성스럽고 순결한 성인(聖人)의 덕에 비할 만하며 꽃의 길잡이라고 언급한다.¹⁵⁾

「48영」 중 35영에서 보이며, 위치는 모침(茅簷)이라 하여 초가지붕 아래로 소정(小亭) 아래 심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쇄원도」에서는 찾을 수 없다.

「48영」 중 35영 사첩사계(斜簷四季: 기운 처마에 핀 사계화)는 『양화소록』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계화는 꽃 중의 성인으로, 공자와 같이 사시에 청화함을 갖추어 운치가 있고 매죽(梅竹)과 맞먹는 좋은 꽃으로 칭송하고 있다. 소쇄원에서 사계화는 꽃 중의 명품으로 성인과 같은 꽃으로 노래하고 있다.

2-14. 파초(芭蕉, *Musa basjoo*)

파초는 크고 넓은 잎을 가진 관엽식 난대식물이다. 외래종이라 이국적인 멋이 있어 ‘남방의 정취’를 상징하며, 고향을 떠난 식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상(鄉愁)을 담고 있다. 커다란 잎에서 녹천(綠天)이라고도 불렸으며, 한여름에 시원함을 더해준다 하여 한여름의 친구이자 풀 중의 으뜸(草王)이라 했다. 우리 선조들은 크고 매끄러운 파초 잎에 시를 쓰거나 글씨를 연마하기도 했으며, 끊임 없이 새잎을 밀고 올라오는 파초처럼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해야 한다[自強不息]고 생각했다.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주는 즐거움[芭蕉雨聲]도 문인들이 파초를 사랑한 이유이다. 중국에서는 위웅물의 일화에 따라 형제애를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했다.¹⁶⁾

「48영」 중에는 43영에서 보이나, 파초의 위치는 불분명하다. 「소쇄원도」에서는 제월당 남쪽에 한 그루 심어져 있으며, 진입부 담장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한 나무도 파초로 알려져 있으나, 1755년 제작된 「소쇄원도」에서는 제월당 앞 파초와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작성된 「소쇄원도」(1903)의 경우, 제월당 앞의 파초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 「소쇄원도」를 처음 작성했을 때는 다른 나무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후 후손들은

12) 박상진, 앞의 책, 2011, 203쪽

13) 「옹호산사(灑湖山寺)」에서는 ‘빈 산이 고요하니 도심이 절로 생긴다(空山寂歷道心生)’라고 노래한다.

14) 이선, 앞의 책, 2006, 640쪽

15) 강희안, 앞의 책, 2000, 96쪽

16) 이선, 앞의 책, 2006, 654쪽

입구의 나무를 파초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초는 향수, 자강불식, 형제애, 파초우성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48영」에서 43영 적우파초(滴雨芭蕉: 비는 파초를 적시고)는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15. 국화(菊, *Chrysanthemum morifolium*)

국화(菊)는 일찍 심었어도 늦게 피어나는 것은 군자의 덕과 같으며, 서리를 무릅쓰고 꽃을 피우는 것은 강직함의 상징이었다. 국화는 동진의 시인인 도연명이 사랑하였던 꽃으로, 주돈이(周敦頤)는 「애련설(愛蓮說)」에서 국화를 은일자라 하였다. 「화복구등품」에서는 일등에 속하며, 높고 뛰어난 운치를 취하는 나무로 일우(逸友, 은둔하는 선비)라 했다. 국화는 황국(黃菊)을 최고로 쳤으며, 신선 음식으로 오래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壽客]고 믿었다.

27영 산애송국(散崖松菊: 절벽에 흐트러진 소나무와 국화)에서 송국(松菊)은 도연명의 「귀래거사」의 구절이며, 2구 ‘동쪽 울타리엔 점점이 누런 황국이라(東籬點點黃)’는 도연명의 「음주(吟酒)」를 연상시킨다. 결국 ‘늦가을 찬 서리를 잘도 버티네’는 국화의 절조를 노래한다. 국화는 군자, 은일, 장수 등을 상징하며, 소쇄원에서 국화는 도연명과 같은 은군자를 상징한다.

국화의 위치는 「48영」에서는 동쪽 울타리, 기슭에 소나무와 섞여 심겨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쇄원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16. 창포(菖蒲,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창포는 물가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여러 마디로 이루어진 향기 나는 뿌리줄기가 특징이다. 단오에 뿌리와 잎을 삶아 머리를 감는 풍속이 전해진다. 창포는 신선이 건네준 장수하는 식물이다.¹⁷⁾ 창잠(菖歎)은 창포로 담근 김치로 주나라 문왕(文王)이 좋아했으며, 공자가 문왕을 사모하여 창포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후세에 유명한 선비와 운치 있는 중들도 좋아하는 이가 많아서 노래와 시로 널리 전했다.¹⁸⁾

「48영」 중에는 34영 격단창포(激湍菖蒲: 세찬 여울가에 핀 창포)에서는 여울물이 구절향(九節香)을 뿜어 더위와 서늘함의 구분이 없다 하여 소쇄원을 속세를 벗어난 신

17) 『신선전(神仙傳)』에서, 한무제(漢武帝)가 숭산(崇山)에 올랐을 때 신선의 말 속에서 나온다. “나는 구의산(九疑山)의 신이다. 듣자 하니 중악산(中岳山)의 돌 위에 한 치에 마디가 9개인 창포가 있다고 하는데, 자고로 이것을 캐다 먹으면 가히 장수할 것이니 어서 가서 캐다 먹도록 하여라(吾九疑山神也. 聞中岳石上 菖蒲一寸九節 可以服之長生故來採耳).”

18) 강희안, 앞의 책, 2000, 119쪽

령스러운 곳으로 칭송하고 있다.

34영에서 창포의 위치는 격단(激湍), 비단(飛湍) 등 세찬 여울가로 보이는데, 비(飛)의 경우 비폭(飛瀑)이라 하여 폭포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소쇄원도」에서는 오크류 아래 개울가에서 보인다.

2-17. 연꽃(芙蓉·蓮, *Nelumbo nicifera*)

연은 물에 사는 다년초로, 흙탕물에 자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어¹⁹⁾ 불교를 상징하는 꽃일 뿐 아니라 군자, 청정무구(淸淨無垢), 다산(多産), 남녀 간의 사랑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²⁰⁾ 연꽃의 한자명은 연(蓮)·부용(芙蓉)·하(荷) 등으로 다양한데, 「48영」에서는 40영에서 격간부거(隔澗芙蓉: 골짜기 건너 핀 연꽃)라 했다. 주돈이의 「애련설」에서 정식(淨植), 원관(遠觀) 등의 시어를 차용하여 군자로 칭송되는 지란보다 연꽃이 더 좋다고 칭송하고 있다.

그 위치는 「48영」에서 개울 건너(隔澗)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소쇄원도」에서는 상하지(上下池) 중 아래 연못에 산지순아(散池蓴芽)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연꽃에 대한 표현은 없다.

연과 순채는 앞서 오동과 벽오동의 표현과 유사하다. 연과 순채가 그 잎의 모양이 비슷하여 구분이 어렵고, 「48영」 중에는 연달아 노래하고 있으며, 「소쇄원도」에서는 하나만 표현하고 있다. 연과 순채를 오동과 벽오동같이 한 종의 식물만 도입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2-18. 순채(蓴, *Brasenia schreberi*)

순채는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수초로서 연꽃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개울가 암석에 부착해서 살며 겨울과 봄 사이에 채집하여 따뜻한 햇볕에 쪄서 말렸다가 식용 또는 약용으로 먹는 식물이다.

「48영」 중 41영 산지순아(散池蓴芽: 연못에 흩어진 순채 싹)에서는 진나라의 장한(張翰)이 자기 고향의 명물인 순채국과 농어회를 먹으려고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순갱로회(蓴羹鱸膾)²¹⁾의 고사를 인용해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그리는 선비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19) 이상희, 앞의 책, 2004, 165쪽

20) 이선, 앞의 책, 2006, 618쪽

21) 『진서(晉書)』 「문원전(文苑傳)」에서 말한 순갱로회(蓴羹鱸膾) 고사가 전한다. 강동보병(江東步兵)이라 불렸던 장한(張翰)은 효성이 지극한 데다 맑은 재주가 있어 문장이 뛰어났다고 한다. 벼슬을 지냈는데, 가을 바람이 일자 고향의 명산(名産)인 순채와 농어회가 생각나 아예 벼슬을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다.(張翰因秋風起 乃思吳中 蓴羹鱸膾 遂命駕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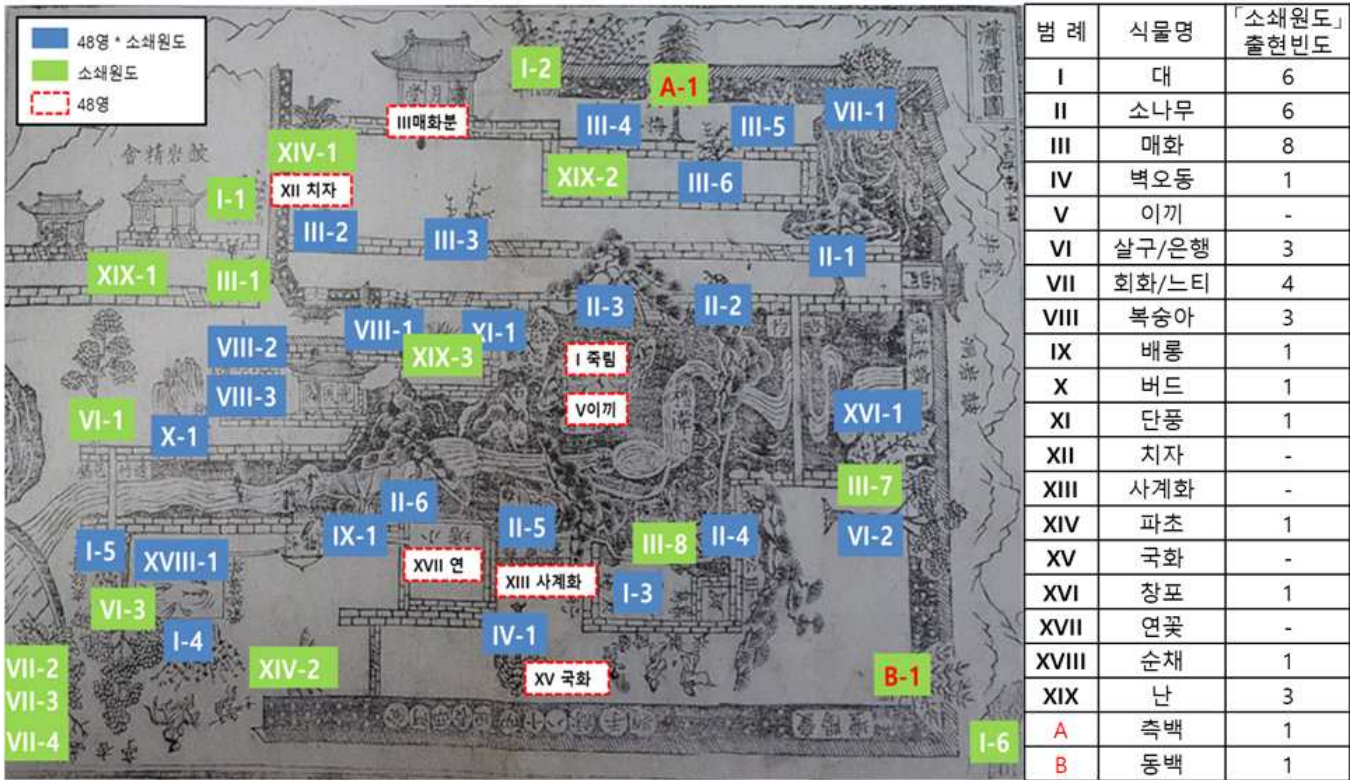


그림 1. 「48영」과 「소쇄원도」에서 조경식물의 위치

「48영」에는 연못에 흩어져 있다고 하며, 「소쇄원도」에서는 아래 연못 안에 그려져 있고 산지순아라고 기록하고 있다.

2-19. 난(蘭, *Cymbidium spp.*)

난초는 사군자의 하나이면서 청초한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시인묵객이 애정을 보냈던 다년초다. 지란(芝蘭)은 좋은 지초(芝草)와 향기로운 난초(蘭草)라는 뜻으로 군자를 일컬으며, 지란지교(芝蘭至交)는 깨끗하고 맑은 벗의 교제를 이른다.²²⁾ 난초는 「48영」에서는 주요 시제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40영에서 연꽃을 칭송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소쇄원도」에서는 매대, 도오, 고암정사의 전경 등 여러 곳에 나타나 「48영」에서는 다른 식물의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어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없는 것과 대조된다. 난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소쇄원에는 대표적인 동양란의 하나이며 춘란(春蘭)이라고도 불리는 보춘화(報春花)가 자랐을 것으로 추측된다.²³⁾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착한 사람[善人]이 함께 있으면 마치 지란의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니, 더불어 그에게 동화된 것이다. 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니, 또한 더불어 동화된 것이다. 단(丹)을 지니면 붉어지고, 칠을 지니면 검어지니 군자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

3. 「48영」과 「소쇄원도」에 나타난 식물의 위치 고찰

「48영」을 통해 조경식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를 조사하였고<표 3>, 그 위치를 <그림 1>과 같이 「소쇄원도」에 표시하였다. 「48영」과 「소쇄원도」에 동시에 출현하는 식물을 파랑, 「소쇄원도」에만 나타나는 식물은 초록, 「48영」의 시어를 통해 추정되는 위치에는 빨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48영」에서 언급된 식물은 대, 소나무, 매화, 벽오동, 은행, 느티, 복숭아, 배롱, 버드, 단풍, 치자, 사계화, 파초, 국화, 창포, 연, 순채, 난, 이끼 등으로 19종이며, 「소쇄원도」에서 확인된 식물은 16종으로 대, 소나무, 매화, 벽오동, 은행, 느티, 복숭아, 배롱, 버드, 단풍, 파초, 창포, 순채, 난, 측백, 동백 등이다. 수종으로 보면 치자, 사계화, 연, 이끼, 국화는 「48영」에 있으나, 「소쇄원도」에는 없다. 측백, 동백은 「소쇄원도」에 새롭게 나타난 수종이다.

「48영」과 「소쇄원도」에서 식물의 위치가 일치하는 곳은 진입부의 대나무(9영, 29영), 연못의 순채(41영), 개울가의 배롱(42영), 대봉대의 (벽)오동(37영), 굽이치는 물가의 향나무(15영), 다릿가의 쌍송(26영)과 계류가의 소나무(17

23) 천득염, 『은일과 사유의 공간: 소쇄원』, 심미안, 광주, 2017, 303쪽

영), 오암의 해나무(24영), 매대의 매화(12영), 도오의 복숭아(36영), 광풍각 인근 개울가의 버드나무(39영) 등이다.

「48영」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소쇄원도」에서 보이는 조경식물은 화계의 측백, 애양단의 동백, 고암정사와 부원당 주변의 매화, 난, 대나무가 있고, 계류가의 매화, 진입부 은행나무[杏亭], 황금정의 느티나무, 난, 죽림재의 대 등이었다. 파초(43영)와 대나무(10영)는 「48영」에서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소쇄원도」에서 제월당 주변에서 보인다.

「소쇄원도」에서만 나타나는 조경식물은 소쇄원의 담장 밖 외원 영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내원에서는 제월당과 계류가에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제월당에 대해 「48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파초나 대[千竿]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류가에 심긴 매화에 대한 언급이 「48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8영」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치자(46영), 사계화(35영), 연(40영), 이끼(18영, 5영), 국화(27영)와 계류가에 죽림(22영, 30영), 매화분(28영) 등이었다. 계류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화분과 치자는 「48영」에서 위치는 불분명했지만 중심 건물에서 감상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점에서 제월당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계화는 모퉁 아래, 국화는 동쪽 울타리, 연은 개울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대략적인 위치는 추정 가능하다. 죽림, 이끼는 「48영」에서 둘 위로 표현하고 있어 계류가에 대나 이끼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본고는 「48영」에 등장하는 식물의 의미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48영」과 「소쇄원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본 바를 식물의 종류와 출현 빈도, 「48영」과 「소쇄원도」에서 식물의 위치, 소쇄원 식물의 상징적 의미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식물의 종류

「48영」에서 언급된 식물종은 대, 소나무, 매화, 벽오동, 은행, 느티, 복숭아, 배롱, 버드, 단풍, 치자, 사계화, 파초, 국화, 창포, 연, 순채, 난, 이끼 등으로 19종이었다. 「소쇄원도」에서 확인된 식물은 16종으로, 대, 소나무, 매화, 벽오동, 은행, 느티, 복숭아, 배롱, 버드, 단풍, 파초, 창포, 순채, 난, 측백, 동백 등이었다.

몇 개의 식물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었다. 첫째, 매화

의 경우 땅에 심는 법 외에도 화분에 가꾸고 감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파초는 「소쇄원도」(1755)에서는 진입부와 제월당 앞의 식물이 다르게 표현되었으나, 후에는 모두 파초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끼도 소쇄원에 운치를 부여하는 요소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2. 식물의 출현 빈도

「48영」 가운데 27개의 영에서 식물을 주요 시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식물이 부소재(7영·11영·22영: 대)이거나 비유의 대상(35영: 대, 35영: 매화, 40영: 지란)으로 언급된 횟수를 포함하면 33회로 나타났다. <표 3>

「48영」에서 식물의 출현 빈도는 식물을 주요 소재로 사용한 영의 수로 보았을 때 대나무가 5개 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소나무 3개 영, 매화와 (벽)오동, 이끼 2개 영, 나머지는 1개 영에 출현했다. <표 3> 대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데 소쇄원의 배경림이며, 조영 당시 소쇄원을 구성하는 식물 중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상위 3개의 식물인 대, 소나무, 매화였다. 이들은 상황이 변해도 한결같은 지조와 절개를 가진 세한삼우(歲寒三友)에 해당하는데, 결국 선비의 심성을 표현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벽)오동에 관한 구절도 2개 영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쇄원이 주인의 은덕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소쇄원 식물의 출현 빈도에 있어 「48영」과 「소쇄원도」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48영」에서는 대, 소나무, 매화 순이었으나, 「소쇄원도」상에는 매화, 대나무, 소나무, 괴목(槐), 행(杏), 난, 파초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소쇄원도」에서 대는 균식 되어 식재 위치의 수가 적게 표현되었다.

4-3. 식물 위치의 특징

「48영」과 「소쇄원도」에서 나타나는 식물의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48영」과 「소쇄원도」 모두 나타나는 지역은 내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으며, 「소쇄원도」에만 나타나는 식물의 위치는 주로 외원 영역이었다. 이는 「48영」이 내원 중심인데 반해, 「소쇄원도」는 내원과 외원을 모두 표현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양단의 동백과 매대의 측백은 「48영」 이후에 새로 심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물의 위치가 일치한 곳은 일반적으로 장소의 상징성이 크고, 인공이 많이 가미된 지역이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자연에 가까운 계류가와 제월당 주변이었다. 제월당

주변의 경우 「48영」에서 제월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4. 식물의 상징성

식물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소쇄원에 도입된 식물의 상징적 의미는 <표 2>와 같다. 식물을 주요 시제로 채택한 27개 영 가운데 20개의 영이 고전(古傳) 및 고사(古事)에 나오는 금언(金言)이나 명구(名句)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식물에 금언이나 명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소쇄원에 도입된 식물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식물은 세한삼우인 대, 소나무, 매화 이외에도 배롱, 치자, 사계화, 국화 등이었다. 또한 군자를 상징하는 식물은 매화, 난초, 국화, 대[四君子]이나, 40영 격간부거에서 지란보다 연이 더 좋다 하여 연이 난초를 대신한다. 대는 처사가 머무는 은일의 장소를 만드는 배경림이 되었고, 이끼는 운치를 자아내었다. 소나무와 해나무는 세속의 번잡함이나 헛된 꿈을 경계하는 상징물이었다. 소쇄원은 속세와 구별되는 선비의 거처로 태평성대, 무릉도원, 신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복숭아, 창포, 버드나무, 파초, (벽)오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48영」과 「소쇄원도」를 중심으로 소쇄원에 도입된 식물의 의미와 위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소쇄원 연구의 일차 자료라 할 수 있는 「48영」과 「소쇄원도」를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소쇄원 식물의 위치와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식물 위치의 경우, 정유재란 때 불타 증견했음에도 인위적으로 조성한 곳에서 조경식물의 위치가 비교적 잘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물의 의미 경우, 식물이 갖는 형태적, 생태적 특징과 관련지어 다층적이고 중의적(重義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의미를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에 한정 짓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소쇄원의 경우 「48영」을 통해 살펴본 식물의 의미는 군자, 지조와 절개, 은일 등으로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소쇄원이 사물에 감응하여 의미를 부여한 정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강희안, 『양화소록』, 개정판, 이병훈 역, 을유문화사, 서울, 2000
2. 국립문화재연구소, 『원림 복원을 위한 전통공간 조성기법 연구: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대전, 2015
3. 고연희·김동준·정민 외,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초판,

태학사, 서울, 2013

4. 고규홍, 『이 땅의 큰 나무』, 초판, 놀와, 서울, 2003
5. 김영모, 「시짓기와 원림 조영방법에 관한 연구: 瀟灑園四十八詠을 통해본 瀟灑園의 造營方法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21권, 2호, 2003, 1~17쪽
6. 김진성, 「소쇄원의 식물 1. 소쇄원48영(瀟灑園四十八詠)의 조경 식물」, 전남대학교 소쇄원연구회 세미나, 2016.12.
7. 김준연, 「시대에 따른 소쇄원 수목의 변화에 대한 고찰」,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5권, 6호, 2012, 511~515쪽
8. 김현미, 「조선시대 별서정원 소쇄원의 意境 양상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9. 박상진, 『궁궐의 우리 나무』, 개정판, 놀와, 서울, 2011
10. 박준규·최한선·박행보(2001), 『시와 그림으로 수놓은 소쇄원 사십팔경』, 초판, 태학사, 서울, 2000
11. 소쇄원시선편찬위원회, 『소쇄원시선』, 2판, 소쇄원·담양군, 1997
12. 심우경, 「소쇄원에 내재된 상징성」, 『소쇄원서사 양산보 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한국정원학회, 2003.10.17.
13. 위침침·김재식·김정문, 「담양소쇄원과 소주창랑정의 조영사상과 경관구성요소에 관한 意味 비교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권, 1호, 2017, 36~47쪽
14. 유재은, 「소쇄원의 조경식물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18집, 1999, 70~82쪽
15.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개정판, 넥서스 BOOKS, 서울, 2004
16. 이선, 『우리와 함께 살아 온 나무와 꽃: 한국 전통 조경식재』, 초판, 수류산방.중심, 서울, 2006
17. 정동오, 「양산보의 소쇄원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1권, 2호, 1973, 27~33쪽
18. 정동오, 「소쇄원의 조경식물」, 호남문화연구, 9집, 1977, 135~155쪽
19. 조규희,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20. 천득염·한승훈, 「소쇄원도와 (소쇄원)사십팔경을 통하여 본 소쇄원의 구성요소」, 건축역사연구, 3권, 2호, 1994, 67~90쪽
21. 천득염, 『한국의 명원 소쇄원』, 초판, 발언, 서울, 1999
22. 천득염, 『은일과 사유의 공간: 소쇄원』, 초판, 심미안, 광주, 2017

접수(2017. 10. 11)

수정(1차: 2017. 12. 19)

게재확정(2017. 12. 26)